입은 화를 불러들이는 문



新 불교사자성어

⑬ 구시화문(口是禍門)

'구시화문(口是禍門)' 이란 "입은 바로 화(재앙)를 불러들이는 문이다"는 뜻이다. 말조심해야 함을 이르는 말로, 야운 스님의 '자경문' 에 나오는 말이다.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는 화종구생(禍從口生)도 같은 말이다.

말조심에 대해서는 인류사 이래 많은 금언(金言)들이 있다. 시시한 글보다는 이러한 금언들이 우리에게 더 유익할 것 같아서, 가슴에 와 닿는 금언 몇 개를 뽑았다.

"개는 잘 짓는다고 해서 좋은 개가 아니며, 사람은 말을 잘한다고 해서 현인이 아니다." -장자-

"말 잘하는 사람치고 어진 사람이 드물다." -공자, 논어-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역시 입으로 걸려든다." -탈무드-

"말이 많으면 몸을 해친다." -노자-

"말은 칼보다 더 날카로운 무기이다." -포킬리데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한국 속담-

"군자는 말이 적고 소인은 말이 많다." -예기(禮記)-

"아는 것을 다 말하지 말라.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지 말라." -이탈리아 속담-

"남을 비난하는 것은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는 화약고의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빼앗아 간다." -D. 카네기-

"말 한마디에 천 냥 빚을 갚는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 빚을 갚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목숨을 단축시키는 경우도 있다.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하다. 말이 야박하거나 각박하면 평생 불목하게 지내는 사이가 되기도 한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상처를 주고받기 쉬운 것이 말이다. 대수롭지 않게 뱉어낸 말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가슴 철렁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 일상생활 속에서 실수하기 쉬운 것이 말이다.

말은 브레이크 같은 제동 장치가 없다. 일단 입 밖으로 나오면 주워 담을 수 없다. 잘못된 말을 했다면 순간의 실수이므로 사과하면 되지만, 사과했다고 해서 백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좋은 말은 인격에 득이 되지만, 경솔한 말은 자신의 인격을 깎아내린다. 타인에게도 많은 상처를 준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쉽게 잊지 못한다.

고려 말 야운 스님(野雲, ?~1340)의 '자경문 3(其三)' 에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고 가볍게 행동하지 말라(口無多言, 身不輕動)." 〈중략〉 입은 재앙을 초래하는 문이니 더욱 엄하게 지켜야 한다. 몸은 온갖 재앙을 일으키는 근원이므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 자주 날아다니는 새는 그물에 걸리게 되고 부질없이 다니는 짐승은 화살을 맞게 된다."고 하며 말조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십어구중 불여일묵(十語九中 不如一默)' 이라는 말이 있다. '열 마디 말 가운데 아홉 마디 말이 옳더라도 침묵하는 것만 못하다' 는 뜻이다. 말이 많으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으므로 가능한 말을 줄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말은 필요하다. '침묵은 금이다' 라고 하여 벙어리 귀신처럼, 소 잡아먹은 사람처럼 함구하고는 살 수 없다. 특히 오늘날 시민사회는 논의, 토론 사회로서, 논의와 토론을 거쳐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방안이 도출된다.

말을 하지 않으면 소통 부재로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없다. 말을 하지 않으면 무언가 서운한 것, 불쾌한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모든 정보도 대화를 통해서 얻어진다.

옛사람들은 '사람은 가벼우면 안 된다' 라고 하여 말을 하지 않는 것을 중시했지만, 현대는 적당히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다. 그것이 부정을 막고 민주사회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좋은 말도 반복하면 의미가 퇴색해 버린다. 그런데 경솔한 말,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는다면 인격에 의심을 받게 된다. 특히 남을 무시하는 말, 타인의 인격에 상처를 주는 말은 조심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말을 조금 함부로 하는 경우가 있다. 가깝다가도 소원해 지는 것은 실은 서운한 말 한마디, 부주의한 말 한마디 때문이다. 오래도록 교우관계를 지속시키고자 한다면 너무 예의에 벗어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말, 언어다.

〈윤창화 민족사 대표〉

물아일여의 소식

〈物我一如〉



격절록 강설

⑬ 백장불자화 5

[評唱 4]

後來黃蘗纔見百丈 丈問 "巍巍堂堂從甚麼處來" 蘗云 "巍巍堂堂從嶺南來" 丈云 "巍巍堂堂來為何事" 蘗云 "巍巍堂堂不為別事" 一日黃蘗謂百丈云" 暫別左右欲禮拜馬祖去" 丈云 "馬祖已遷化了也" 蘗云 "未審馬祖在日 有何言句" 丈遂舉再參因緣 黃蘗不覺吐舌. 但如此參 到至玄至妙處 隨分舉一毫 便蓋天蓋地 便能拈一莖草 作丈六金身用 將丈六金身 作一莖草用 天下人總不奈你何.

뒷날, 황벽(黃蘗)이 백장(百丈)을 뵈었는데, 백장이 물었다.

"외외당당(巍巍堂堂)하게 어디에서 왔는가?"

황벽이 말했다.

"외외당당하게 영남(嶺南)에서 왔습니다."

백장이 말했다.

"외외당당하게 와서 뭘 하려는가?"

황벽이 말했다.

"외외당당하게 다른 일을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루는 황벽이 백장에게 말했다.

"잠시 곁을 떠나 마조께 예배하러 가고자 합니다."

백장이 말했다.

"마조께선 이미 천화(遷化)하셨네."

황벽이 말했다.

"잘 모르겠습니다, 마조께서 세상에 계셨을 때 어떤 말씀이 있으셨는지."

백장이 재차 참례했던 인연(再參因緣)을 거론하자, 황벽이 자기도 모르게 혀를 내밀었다(不覺吐舌).

다만 이와 같이 참구해서 지극히 현묘한 곳에 이르러야지, 분에 따라(隨分, 인연 따라) 한 터럭만큼이라도 거론하면 바로 하늘을 덮고 땅을 덮어버리게 될 것이다. 한 줄기 풀을 들어 장육금신으로 쓸 수도 있고, 장육금신을 들어 한 줄기 풀로 쓸 수도 있어야, 천하인이 모두 그대를 도무지 어찌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

❋"한 줄기 풀을 들어 장육금신으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술이 있으니 참조하기 바란다.

①世尊與眾行次 以手指地云 "此處宜建梵刹" 帝釋將一莖草 插於地上云 "建梵刹已竟" 世尊微笑.

세존이 대중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손으로 땅을 가리키면서 말했다.

"이 곳에 마땅히 범찰을 세워라."

제석천이 한 줄기 풀(一莖草)을 들어 땅에 꽂고, 말했다.

"이미 범찰을 세웠습니다."

세존이 미소 지었다.(선문염송집 · 종용록)

②此事如明珠在掌 胡來胡現 漢來漢現. 老僧把一莖草 作丈六金身用 把丈六金身 作一莖草用. 佛即是煩惱 煩惱即是佛. 是漏心佛不二 物我一如之消息也.

이 일은 마치 명주(明珠)를 손안에 가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오랑캐가 오면 오랑캐가 드러나고 한족이 오면 한족이 드러난다. 노승은 한 줄기 풀(一莖草)을 집어 장육금신(丈六金身)으로 쓰기도 하고 장육금신을 집어 한 줄기 풀로 쓰기도 한다. 부처는 곧 번뇌요, 번뇌는 곧 부처이다. 이 번뇌(漏心)와 부처는 둘이 아니며, 물아일여(物我一如)의 소식이니라."(조주록)

❋장육금신(丈六金身): 신장이 1장 6척이고, 피부색이 자마금색인 석전의 몸. 신장과 피부색으로 석존의 초인성을 표현하는 말.(선학사전)

〈강승욱 법사〉



신해행증으로 본 백문백답

⑬ 믿음 편 13

자비의 화신, 관음보살

한 조직의 리더가 참모의 구체적인 일까지 세밀히 챙긴다면 어떻게 될까? 겉으로야 잘 돌아가는 것 같지만, 직원들은 수장이 시키는 일만 하기 때문에 조직의 발전을 기대하기 힘들다. 리더는 조직의 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참모들이 마음껏 일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혹여 실수할 경우엔 그 책임까지 질 줄 알아야 한다.

서방정토의 수장인 아미타불은 바로 이런 리더십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관음보살은 아미타불의 이념과 방향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핵심 참모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아미타불과 관음보살께 귀의한다는 뜻을 담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관음보살은 중생들의 신음소리(世音)를 보고(觀) 고통을 해결해주는 자비의 화신이기 때문이다. 관음은 늘 중생들의 고통과 함께 하기 때문에 힘들 것 같지만, 뒤에서 든든하게 뒷받침해주는 아미타불이 있기 때문에 일이 고단하지 않다.

관음(觀音)은 산스크리트어 '아바로키테슈와라(avalokiteśvara)' 를 한자로 옮긴 말이다. 현장(玄奘, 602~664) 이전의 구역에서는 주로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로, 신역에서는 관자재보살(觀自在菩薩)로 번역되었다. 오늘날 이 두 번역이 함께 쓰이고 있지만, 불자들에겐 관음이란 이름이 더 친숙하다. 우리나라 사찰에서는 관음보살이 대세지보살(大勢至菩薩)과 함께 아미타불을 보좌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인다.

그런데 관음보살은 여러 모습으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보통은 6관음이 일반적이지만, 33신(身)의 자유자재한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6관음은 아귀를 구제하는 성관음(聖觀音)이 본신이고, 지옥중생을 구제하는 천수관음(千手觀音), 축생을 구제하는 마두관음(馬頭觀音), 아수라의 중생을 구제하는 십일면관음(十一面觀音), 인간의 고통을 구제하는 준제관음(准提觀音), 천상의 고통을 구제하는 여의륜관음(如意輪觀音) 등이 있다. 관음이 다양한 모습의 아바타로 나타나서 중생을 구제하고 있는 것이다.

관음보살은 〈화엄경〉이나 〈법화경〉, 〈관무량수경〉 등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자비심이라는 공통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다. 자비심 없이 중생을 구제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천수천안관음(天手天眼觀音)이 천개의 손과 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십일면관음의 얼굴이 11개나 되는 것도 모두 중생들의 고통을 자세히 살피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중생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관음보살을 지성으로 부르면 언제 어디서든 즉시 나타나 구해준다는 믿음이 담겨있다. 이런 점에서 관음신앙 역시 모든 중생을 구제한다는 대승불교의 이념이 잘 드러나고 있다.

〈화엄경〉에는 관음보살이 향기로운 백화(白花)가 만발한 보타낙가(Potalaka 補陀洛迦) 산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낙산사의 낙산은 보타낙가를 가리키는 말이다. 〈삼국유사〉에는 신라의 의상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이곳 바닷가 동굴에서 간절히 기도한 끝에 관음보살을 친견하고 낙산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의상 역시 이 땅이 바로 관음보살이 머무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에는 낙산사를 비롯하여 강화도 보문사(普門寺), 남해 보리암(菩提庵) 등 유명한 관음도량이 많다. 관음도량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바로 관음보살의 주처(住處)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할 것이다. 우리들이 자비심만 잃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이 땅을 정토로 장엄할 수 있지 않을까.

수행이 잘 익어 가면 나의 고통이 아니라 다른 이의 고통이 보인다고 한다. 불교의 위대성은 다른 이의 고통을 볼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에 있다. 그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관음보살이 때로는 물병을, 어느 곳에서는 호미를 들고 서있다. 자비의 화신다운 모습이다. 오늘도 나는 부처님 앞에서 자비심을 잃지 않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한다.

〈이일야 전북불교대학 학장〉

붓다북 불교종합쇼핑몰 Buddha Book



지면에 진열된 상품들은 붓다북에서
미니불상으로
검색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www.buddhabook.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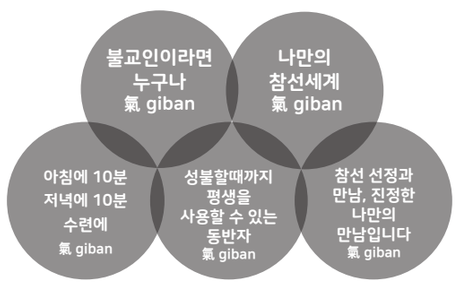
서울 성북구 보문로 38길 11 동일하이빌 지하 1층 (주) 운주사 Tel. 02-953-7181

세계에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제품의 특징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세로 32cm×높이(뒷면) 8cm]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